

국립중앙도서관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utsourcing th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노 문 자(Moon-Ja Ro)**

초 록

아웃소싱은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자원의 집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체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도서관에서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다. 외국도서관에서 자료정리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사례는 미국에서 처음에 시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였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서지레코드의 품질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문헌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직까지도 도서관의 핵심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자료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였다. 이러한 국가대표도서관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리나라의 목록서비스업체 시장 상황에 맞추어 논의 되었다.

ABSTRACT

The critical strength of outsourcing system i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ompany by applying the centraliz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This strategy has been used in library management and become the general method. The libraries in

the U.S. stated to adopt the outsourcing system to organize the information of library works. Those in Korea also commence to use this method later on. The main reason of outsourcing th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works in the library was to reduce the budget; however, result were diverse. The efficiency on performing works was positive while the quality of bibliographic record was not guaranteed. Regardless of various

opinion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ecided to apply the method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considered as a major work in maintaining library.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decision made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키워드: 아웃소싱, 자료정리, 국립중앙도서관

Outsourcing,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본 논문은 2004년도 숭의여자대학 학술논문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omj@sewc.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22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7일

1. 서론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행정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가감한 인력감축을 시도하였다. 또 이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인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예산안의 편성 지침에서, 또 행정자치부는 시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침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도입하였다. 시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도 아웃소싱을 적극 도입하였다.

IMF의 여파는 도서관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도서관은 행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상부의 지시대로 감축인원을 정해놓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사립대학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 즉 비용감소를 이유로 사서직원이 감원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직원의 정년퇴직 후에는 빈자리가 충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서관이 수년간 운영되다 보니 정해진 직원으로는 업무량의 증가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록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새로운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동시에 도서관을 전문으로 납품하던 서적상에서도 도서납품과 함께 MARC데이터를 제공하여 그들의 판매량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정리자료 재고의 해결방법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도서관이 증가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편

목부서를 축소 또는 폐쇄하는 도서관까지도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도서관 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서관 시스템 개발 등 전산화 관련 사업을 아웃소싱 하였고 IMF부터 2000년 전까지는 정보화근로사업을, 2000년 후부터는 단계별 도서관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적체된 미정리자료의 정리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다. 즉 역사적으로 도서관 업무 중 사서의 정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자료조직 업무인 목록과 분류를 아웃소싱 하였다. 물론 다양한 도서관 업무 중 일부가 아웃소싱 되는 것은 일반화 된 현상이고, 또 국내외 도서관에서도 목록업무의 주체가 꼭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여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은 일반화의 경향을 보이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국가문헌정보서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고품질의 서지데이터를 타도서관에 제공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핵심 업무를 아웃소싱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서관계, 특히 이 분야의 학자들 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일련의 업무수행에 따라 그들의 문제점과 입장,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 등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아웃소싱과 외주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목록과 편목도 관습상 같은 의미로 쓰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웃소싱과 당면 문제

2.1 아웃소싱의 개념과 도서관업무의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유사한 개념을 가진 업무로는 하청, 청부, 외주, 인재파견, 컨설팅, 업무대행, 분사화, 외부화, 외주위탁, 외부위탁, 외부용역, 외부대행 등 다양하게 불리며 영어로는 outsourcing, 즉 외부(out) 자원(source)의 활용 또는 위탁(contracting out)으로 불린다(이선영 2004). 아웃소싱은 먼저 기업체에서 기업 경쟁력강화의 차원에서 미국에서 시작했다. 기업의 경영전략은 개개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아웃소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자원의 집중이다.

아웃소싱은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성, 시스템, 노하우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자사가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경영능력을 집중하는 경영기법이다. 도서관의 아웃소싱은 정보자료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업무 이외의 보조적인 주변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비용을 절감하여 내부가용자원을 핵심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보다 기본적인 영역으로 배치할 기회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어려운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아웃소싱은(윤희운 2000), 첫째 도서관 특정 업무나 기능,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의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유지와 보수, 네트워크관리 등을 일괄해서 단일 업체에 일임하는 전면적 아웃소싱 또는 완전외주(total outsourcing)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서관과 외주서비스제공자간에 모든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서비스제공자는 도서관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침만 받거나 아무런 지침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둘째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능, 예를 들면 외국자료의 구입, 학술지의 국내중개상 위탁, 학위논문의 외국대행사 활용 등을 다수의 전문 업체에 분할하여 외주하는 선택적 아웃소싱(selective outsourcing)이 있다. 셋째 완전외주나 선택적 외주의 업무인 전산시스템개발이나 홈페이지제작과 같은 업무의 계약이 종료되면 내부관리로 전환하는 전환적 아웃소싱(transformational outsourcing)이다. 마지막 넷째는 한시적 아웃소싱(temporary outsourcing)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인 업무나 단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도서관에서는 흔히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으로 넘어갈 때 소급변환업무가 대표적인 예이며, 또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미정리 누적자료의 정리 업무를 외주하는 형태도 여기에 해당된다.

도서관의 아웃소싱은 이미 1900년에 LC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LC는 목록업무의 합리화 방안과 당시 국제목록카드규격의 통일화 방안으로 Wilson Company가 LC의 목록카드를 복사하여 참여도서관에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그 후 도서관 외적인 업무인 시설관리(경비, 전기시설, 관내청소)가 용역으로 전환되었고 또 도서관 내적인 업무로는 외국학술지의 대행사를 통한 구입, 제본, 자료의 마이크로화, 자료의 대량탈산

복사서비스의 용역이 있다. 본격적인 도서관업무의 아웃소싱은 1980년대 도서관전산화가 추진되면서 활성화되었다. 도서관전산화 초창기에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서관업무의 전산화를 시도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도서관들이 아웃소싱에 적극 임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소급입력은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최근에는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이 주요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은 건물 관리나 시설 관리 등 도서관의 주변기능에서 시작하여 점차 핵심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목록과 분류업무를 대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국민들의 정보획득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은 전통적인 정보 보유 및 서비스 기관인 도서관들에게 정보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의 출범 당시 국가사업의 100대 과제에 도서관정보화사업이 포함되었었다. 동시에 1998년 IMF 경제위기는 고학력 실업자를 초래하였다. 미국이 세계 2차대전 후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국가협동수서정책인 Farmington-Plan을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도서를 Blanco-Check로 수집하여 도서관에서 실업자를 흡수한 예와 비슷하게 우리

나라는 고학력 실업자 구제책으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리하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국의 정부는 1990년대부터 방만한 정부기구의 슬림화와 공공부분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행정기능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기구의 슬림화를 주장하면서 글로벌아웃소싱은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매년 초에 발표하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면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전산화를 부분적으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했고, 90년대에는 후반부는 온라인시대에 접어들어 지금 도서관계 화두는 디지털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1980년대부터 전산화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외주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82년에 전산실을 설치하였다. 주전산기가 들어오면서 CENTRAS 프로그램을 한국컴퓨터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단행본용 목록시스템을 시작하고, 1988년에는 도서관 전산화에 따라 도서관 직제도 개편하였다. 1990년 국립중앙도서관은 교육전산망에 근거한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서지의 표준화 및 도서관 지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7년까지 PC용 도서관업무전산화패키지 KOLAS를 개발하고,

PC용 연속간행물시스템, UNIX용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원도우버전 KOLIS를 개발하여 199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자료유형의 등장, 컴퓨터운영체제(MS-DOS에서 Window)의 변화 및 인터넷의 일반화를 IT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II를 개발하였다. 200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국가자료 및 정보유통망구축을 통하여 전체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및 목록정보구축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정보자료를 공유하고자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구축사업이 국고지원 품목으로써 선정되어 KOLIS-Net에 참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산화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전면적, 선택적, 전환적, 한시적 아웃소싱이 혼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업무의 아웃소싱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보화공공근로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었거나 또 추진되고 있는 외주사업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자료종합목록DB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전 자료를 대상으로 목록 및 소장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One-Click만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자료에 대해 한 번의 목록데이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목록DB에 업로드

하여 전국 도서관이 목록데이터를 공동 활용 시에 목록데이터의 중복 작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목록데이터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2) 국가자료목록정보DB구축 : 도서관정보화사업 1단계로 2000년 국내단행본, 서양서, 연속간행물 345,348책, 2001년에는 1945년 이전 발간자료 등 222,063책, 2002년에는 국내 단행본, 서양서, 연속간행물 137,375권을 완성하였고 도서관정보화사업 2단계로 2003년에는 1945년 이전 연속간행물 등 58,669권을 완성하여 총 965,445책의 목차정보DB를 구축하였다

(3) 주요자료원문정보DB구축 : 보존 자료 중 학술적,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원문정보DB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원문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정보 빈부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였다.

(4) 비도서자료 매체변환DB구축 : 정보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학술적, 정보적 가치가 있는 비도서자료(비디오테이프 DVD 4천점과 VOD 2천점)를 디지털 형태로 구축하여 관내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5) 권호정보DB구축 및 주제명표목표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대한 연속간행물 권호정보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DB로 구축하여(총 1,300,000건)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정보접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사업과 함께 도서관의 오랜 과제였던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였다.

(6)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DB구축 : 소장한 연속간행물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연속간행물기사의 기사색인MARC 및 초록·목차정보DB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다.

(7)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구축: 정보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지원 의지를 현실화 시키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구축된 텍스트 DB는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음성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점자파일변환기를 이용하여 점자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위의 사업들은 2003년 도서관정보화DB구축 2단계 사업들이다.

(8) 시각장애인도서관 종합목록DB구축 : 시각장애인도서관(자료실)이 소장한 자료를 대상으로 소장 자료를 통합검색하고 소장도서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간에 공동으로 목록전산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예산이 많이 드는 시각장애인용 자료의 중복제작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9)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본계획 수립 관련사업: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정보원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인쇄매체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자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시각장애인용...200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종합계획(2001.6)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정보격차해

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3에 의해 정해진 정보통신부의 장애인, 노인들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2002. 5)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1)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확장·개선 사업: 새로운 정보환경 및 업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KOLIS, KOLIS-net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KOLAS II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2) 유니코드체계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신규시스템/확장·개선사업(유니코드체계 ... 2003) : 통합정보시스템 및 KOLIS-net, 목차/초록관리시스템, 출판시표준목록시스템(e-CIP), 온라인저장물수집시스템,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에 만국 공용의 문자집합표준인 유니코드체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사서직 교육관리시스템, 주제명 표목표 활용 기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3) 납본대행 및 MARC DB(납본대행 및 ... 2004) : 국내 신간자료를 당일 내 납본하고 또 지금까지 납본율이 약 70% 상회하고 있는 납본율을 높이기 위해 도서 및 비도서자료의 납본을 위탁하고, 위탁업체에서는 납본과 동시에 납본자료의 MARC DB를 제공한다.

(14) 자료정리(목록, 분류, 표지, 목차DB, 장비등)업무(자료정리 ... 2004): 정리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자료중 학위논문(68,450책), 동서양 교환자료(1,500책), 서양구입자료, 기증자료(9,000책), 교환된 마이크로필름(2,500건) 등 총 90,950책의 목록과 위에 언급된 자료와

비도서자료(20,000점), 학습서(2,800책), 교과서(1,500책), 만화(11,000책), 아동도서(11,000책)의 분류를, 또 언급된 자료 이외의 일반도서(4,600책), 정부간행물(7,200책), 구입서양서(23,000책)의 장비를 외주했다. 본 논문은 이 외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5) 목록/목차정보 유니코드체계기반 구축 및 국가전자도서관 연계·확장사업(목록/목차정보 ... 2004) :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 표준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유니코드체계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국가자료 관리 및 시스템이 8비트 문자 체계를 지원하고 있어 한글 고어와 다국어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과의 각종 디지털 자료 및 서지정보에 대한 교류와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6) 목록 DB구축 및 자료정비사업(목록 DB구축 및 ... 2004) : 도서관자료로 수집은 하였으나 자료정리의 미흡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했던 자료를 외주하였다. DB는 2005년 1월부터 목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구축된 목록의 DB중 악보자료는 국내 유일본에 해당된다.

위에 열거한 다양한 외주사업들은 사업의 속성상 단기성과 연속성을 띄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웃소싱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아웃소싱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문제점 : 자료 봉사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도서

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2004년 도서관법 개정 시안에 나타난 기능은 다음과 같다(도서관법 개정시안 2004).

- (1) 국내외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2) 국내자료의 납본관리
- (3) 국가서지 등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 (5)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와 도서관 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국제교류
-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 문화 활동 및 평생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9)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
- (10)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11)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업무의 개발과 지원
- (12)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위에 열거된 기능 중에서 본 논문과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자료의 봉사와 관련 지어서 조직 및 인적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 논문의 주제인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은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위에 언급된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98년 개편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장직에 지원연수부와 열람관리부 아래 6개 과와 1 담당관(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과, 정보

화담당관, 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체계로 이루어졌었으며 학위논문관은 분관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면 3관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책업무과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조직은 관장직에 기획연수부와 자료관리부 아래 6개과와 1담당관(총무부, 도서관정책과, 사서능력발전과, 정보화담당관, 주제정보과, 자료기획과, 정책자료과) 체계로 개편되었고, 현재 분관으로 유지되고있는 학위논문관 본관으로 통합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 직제개편의 특징은 그 동안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가 담당해 온 도서관 정책 기능의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린 도서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책기능을 위임 받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는 기존의 지원협력과가 수행해온 업무들 -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각종 표준의 개발과 보급, 각 관종별 도서관에 대한 조정과 지원, 외국에 대해 창구역할과 함께 새로운 업무인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국민독서진흥활동의 지원, 육성, 공공도서관 설립지원 및 육성, 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등을 추진 한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2004). 그러나 도서관계에서

는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부 정책에 수차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참여정부 ... 2004). 1963년 첫 도서관법 이후 도서관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도서관 정책부서를 국가 단위로 중앙부서에 과 단위 행정부서의 정착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겨우 1990년 중앙부서 문화부 아래 도서관정책의 전담부서인 도서관박물관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신설된 도서관·박물관과가 14년 만에 폐지되고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기능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전되었다.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가단위의 도서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과거로의 회귀인 후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개편 전의 조직 구성의 직원분포를 보면 열람봉사과가 25.94%, 자료조직과가 23.78%, 서무과가 16.75%, 납본과와 정보화담당관이 10.81%, 지원협력과가 6.48%, 사서연수과가 4.86% 순으로 나타났다(도서관중장기...2002). 위의 조직체계에 의하면 열람봉사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인력의 배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맡고 있는 개발도상국시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이나 일본의 국립도서관 처럼 의회도서관의 기능과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종합한 일원화 체제인 도서관이 아니다. 우리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화체제로써 유일한 국가대표도서관이다. 미국의 LC나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전문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기능인 두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들 두 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도 하루 이용자 수는 LC가 1.855명이고 일본은 1.742명에 불과하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우리나라처럼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기능이 분리된 이원화 체제인 독일국립도서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의 대국민 봉사업무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과거 라이프찌히 동독국립도서관과 프랑크푸르트 서독 국립도서관을 유지하는 2개의 국립도서관 운영체제이다. 우리나라처럼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국립도서관 하루 이용자는 2003년 1.950으로 집계됐다(Jahresbericht 2003). 우리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기능이 없이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도 하루 이용자가 4.827명이나 되고, 주말에는 8,000명을 넘어선다. 우리나라처럼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분리되어 2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국립도서관의 대국민 정보봉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처럼 독일의 국립도서관도 주요 기능은 자료수집, 보존과 각종 서지발간, 국가서지센터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대국민 봉사는 일반 이용자에게 회원제를 운영하여 년 회비 36 EU, 월 회비 13 EU, 일일회비 5 EU를 받고 있다(Die Benutzungsordnung..). 특히 연구목적의 이용자에게는 이용 자료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독일 국내와 국제상호대차제도의 경우에도 독일국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전역에 걸쳐 탐색한 자료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독일국립도서관은 자료탐색의 파

지막 보루로서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회 이용 신청 책 수를 단행본 5책 이하, 연속간행물 5책 이하, 비도서자료 3점 이하, 고서 3권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 2004).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이용 책 수의 제한 때문에 이용자의 수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면 분명 이용자의 수가 급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이용료 부과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수년 전부터 공부방의 용도는 탈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수는 꾸준히 늘었고, 최근 들어 그 숫자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경제적 불황기에는 도서관의 이용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거의 정설로 통한다. 우리처럼 도서관 이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용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인구에 비해 일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대표도서관이 한정된 인원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국가대표도서관은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도서관처럼 지역의 주민이 즐겨 찾는 도서관이 아니다. 일본 국립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본관도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으며, 이들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얻지 못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특별한 자료의 이용을 제외하고는 국가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수준쯤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공공도서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국가문헌서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미정리 자료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 어느 국가대표도서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까지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리자료를 아웃소싱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리인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을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본적인 고유 업무인 국가문헌서지 정보센터의 역할에 투입하여 인력 부족으로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의 자료정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도서관 서비스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대국민봉사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과 문제점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목록인 DB는 도서관의 내용, 즉 도서관의 소장 사항을 대변하는 중심축으로써 전통적인 인쇄 자료의 증가에서는 물론 전자자원의 증가에서도 그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더 강조된다. 우리는 인쇄 자료에서부터 웹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시대의 핵심인 서지레코드 작성에 대한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 DB의 서지레코드를 담당하고 있는 목록전문가는 도서관 전산화, 자동화 과정에서 그들 업무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지금은 카피 목록으로 오리지널 목록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 도서관의 서지레코드는 꼭 도서관의 정리부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고, 누가 어디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던 간에 제대로만 만들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틈새시장인 목록서비스전문업체의 등장으로 목록전문가들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의 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심지어 목록 부서를 폐쇄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목록서비스업체의 서지레코드는 도서관의 오리지널목록 작성이나 고품질의 목록작성을 위협하고, 이 위협은 결국 이용자가 장서에 접근하는데 방해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체제에서 소비자, 즉 도서관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목록서비스업체시장은 아직까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의 서지레코드의 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대

학도서관들은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서지레코드의 질적 저하를 초래 시켰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였다.

3.1 외국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은 도서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리업무에 아웃소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이다.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목록업무를 완전외주 방식, 부분적·단기적 외주 방식, 부분적·장기적 외주 방식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단기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장기적 외주 방식을 택하고 있고, 완전 외주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라이트주립대학(Wright State University)이다. 이 대학도서관은 1993년 그들의 목록부서를 아예 폐쇄하고 OCLC TechPro와 계약을 체결했다(Dunkle 1996). 이 경우는 지금까지 도서관 업무의 정체성을 대변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장 많이 인정받던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자료정리업무를 단기적 외주도 아닌 완전 또는 전면적 외주를 주었다는 점에서 도서관계에서 매우 커다란 반향을 자아냈다. 이 사례는 목록업무를 외주가 비용 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관리자의 긍정적인 의견과 반대로 목록 비용의 절감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서 실무자 비판적 입장으로 나타나 목록업무를 외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Ohio 주립대학교 도서관은 특정 언어 자료의 목록을 외주 한 결과 목록의 질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특정 언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목록을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El-Sherbini 1995).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University of Dayton의 Marian Library는 역시 특정 언어인 라틴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1800년 이전 회귀단행본의 소급목록과 오리지널목록을 외주하여 긍정적인 평가로 귀결되었다(Tsu and Mushenheim 1999).

1995년 하와이주 공공도서관시스템(Hawaii State Public Library System)이 Baker & Taylor사와 장서개발 및 목록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이 경우는 사서들의 도서 선정권을 박탈하고, 사서들의 고유 업무로 인정되는 목록업무를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비화되었다. 특히 목록업무 아웃소싱은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의 부족으로 누적된 미정리 자료를 단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는 있었지만 어려운 서지레코드 질에 대한 비용 산정과 정리사서들의 심리적 공황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Benaud and Bordeianu 1999).

Libby와 Caudle 은 대학도서관이 목록업무를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그들의 조사에서는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기술했고, 아웃소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아웃소싱의 동기,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 해야 하는지, 아웃소싱 업체의 선정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 이 경우는 목록업무를 아웃소싱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이는 장서량과 매년 목록이 되는 신규타이틀의 수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는 아웃소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ibby and Caudle 1997).

Scheschy는 아웃소싱이 성공적일 경우 도서관은 목록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 또는 협력관계로 이어져 Win-win 전략으로 발전하루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웃소싱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목록업무는 그 비용산출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목록업무 자체의 비용은 추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록의 품질에 대한 비용은 추산이 어렵다. 도서관마다 목록업무의 내용이 달라서 도서관이 오리지널 목록만 하는 경우, LC에서 제공하는 MARC서지데이터를 카피만 하는 경우, 또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 또 목록사서가 목록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등 그 형태가 다양하여 비용 산출이 쉽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목록사서의 전문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고 했다(Scheschy 1999).

Adelphi 대학도서관은 1995년에 신간도서를 Blackwell's Book-Services에 신간도서의 납품과 동시에 MARC을 제공받는 the MARC with Books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이 회사는 도서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서적상으로서 그들의 도서를 납품과 더불어 납품도서의 MARC서지데이터를 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도서의 판매량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은 구입 자료에 대한 신속한 목록정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 집약적인 자료장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했고, 이 외에도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 프로젝트로 인해 도서관은 직원을 감원하여 그 다음해에는 미정리 자료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김영귀 2001).

Alabama 대학도서관은 1996년 누적된 미정리 단행본을 OCLC TechPro에 아웃소싱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계획을 했으나 비용의 절감 효과를 장담 할 수 없었고, 또 추가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사서들의 업무에 큰 혜택이 없다는 판단아래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김영귀 2001).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아웃소싱 하여 목록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서지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은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2 국내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

외국에서는 정리업무의 아웃소싱 사례가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목록서비스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목록서비스가 1995년 노옥순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녀는 도서관의 핵심 업무로 일컬어졌던 목록업무가 목록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목록정보로 인해 더 이상 사서들의 고유 업무가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정리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서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목록서비스업체의 등장으로 목록업무의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도 서지통정에 없는 자료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비도서자료, 향토자료, 특수언어 자료 등에 대한 오투리널 목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 되므로 목록전문사서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했다(노옥순 1995).

윤희윤은 아웃소싱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서직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웃소싱을 도서관의 비 핵심 업무에 도입할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핵심 업무에 도입할 경우에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퇴조시키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견지에서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윤희윤 2000).

김영귀는 부산 경남지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목록업무의 아웃소싱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목록업무에 아웃소싱의 도입은 직원의 부족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이 어려운 이유로는 목록서비스전문업체의 부족을 꼽았다. 또 아웃소싱을 도입할 때는 분명히 도서관 직원의 함의를 도출해야 하며, 타당성의 조사, 철저한 사전계획, 목록전문업체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리 감독, 계약이 끝난 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계약상의 조건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김영귀 2001).

김포옥과 노옥림은 국내 213개 대학도서관의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해 조사했다.

대학도서관이 정리업무를 아웃소싱한 동기로는 정리업무 직원의 부족, 구입 자료의 증가, 누적된 미정리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정리 요구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

었으며, 특히 정리업무 시간의 단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MARC서지레코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 앞으로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51.2% 대 47.9%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김포옥, 노옥림 2004).

윤정옥은 국내 4개 대학의 목록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4개 대학 모두 경비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주요 원인을 서지레코드의 품질에서 찾았다. 그녀는 외국의 아웃소싱과 비교할 때 국내에는 편목전문가로 구성된 편목전문외주업체가 없고, 서지레코드를 참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서지유틸리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서지레코드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면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았다(윤정옥 2004).

3.3 국립중앙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의 문제점

3.3.1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 문제

목록은 도서관 업무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이며, 참고봉사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정리 업무의 외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자료정리 2004).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납본을 통한 국가문헌자료의 영구 보존과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강화의 필요성,

- 연간 자료 수집량은 출판량 증가, 신매체 출현이 매년 증가 추세이나 현행 정원동결의 부

족한 인력 운영으로 갈수록 자료정리가 지연되고 누락되어 정보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실정

- 정보화시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도서관업무 혁신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부각

- 민간 외주를 통한 사서직의 주제전문사서 육성과 자료수집 전담제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망라적 자료수집체계 정착의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정리 직원의 부족, 신매체 자료와 기증 자료의 증가로 인한 미정리 자료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써 자료정리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서관 환경적 변화도 한 몫을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도서관 자동화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도서관 서비스가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관의 핵심 업무로 자타가 공인하던 목록작성업무의 주체가 반드시 도서관의 정리부서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변화가 오기시작 했다(윤정옥 2004). 이와 함께 목록데이터의 소급입력은 이미 목록전문가의 손을 이미 떠났고, 심지어 신착자료의 오리지널목록업무도 비전문직 업무로 분류되어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일반 도서관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또 도서관은 자관이 처한 여러가지 환경 여하에 따라 제반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목록작성을 아웃소싱 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목록업무를 아웃소싱한 대학도서관들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미정리자료를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이용자의 자료 접근의 확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업무 중 현재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에서 목록관련업무(59%), 시스템관리(27%), 건물관리 및 청소(24%)의 순으로 나타난 조사가 입증하고 있다(김영귀 2001). 그러나 소위 우리나라의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은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을 서지데이터의 품질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미래에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도서관들조차도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을 꺼리는 마당에서 국가의 지적 문화재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국가대표도서관이 대학도서관의 목록담당자들보다도 경험이나 전문성 면에서 높다고 볼 수 없는 목록작성자들로 구성된 외부 목록서비스업체의 서지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LC는 외부의 서지데이터를 받아들이지만 미국에는 LC가 신뢰할 수준의 국제적인 서지유틸리티 OCLC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고품질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서지데이터로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준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으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들의 서지데이터에 한 치의 부정확성을 허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내에서조차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서지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

3. 3. 2 국가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사서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국가서지통정(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이며, UBC는 각각의 도서관이 발행된 나라에서 목록이 작성되어 전 세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적절하게 정의한 유네스코의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세계국립도서관 협력과제모음집 1996).

- 국가서지발간
- 그 나라 관련 책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대표적인 외국문헌을 수집하여, 그 최신성을 유지
-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
- 종합목록편찬
- 소급 국가서지 작성

국가대표도서관은 국가서지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써 국내문헌에 관한 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지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문헌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없이는 국가대표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유 업무는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 납본을 통해 수집한 국내문헌에 관한 서지레코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각 도서관의 반복 업무를 덜어줌으로써 인력과 시간, 비용의 절약은 물론 서지레코드의 품질 향상과 목록의 표준화 등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은 매우 낮다. 김포옥, 노옥림의 조사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오리지널목록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를 참조한다는 비율은 13%로 나왔고, KERIS의 종합목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76.96%로 나타났다(김포옥, 노옥림 2004). 또 대학도서관에서는 오리지널 목록을 작성하는 비율이 거의 30%에 이르고, 공공도서관은 10% 수준이다. 반면 미국도서관들은 LC나 또 OCLC와 RLIN과 같은

서지유틸리티에서 제공한 목록을 이용함으로써 도서관의 자체 오리지널 목록의 비율이 5% 내지 7%에 불과하고, 독일 역시 각 주의 지역정보센터의 목록을 이용하여 비슷한 수치의 오리지널 목록 작성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영국도 BLCMP(Birmingham Libraries Cooperative Mechanization Project)의 DB를 90% 정도 카피목록으로 활용하고, 이 중에서 80%는 편집이 필요없이 사용하고 있다.

모든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고품질의 서지레코드를 기대하는 것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책무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CIP정보의 효율성에 관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조사에서 58.4%가 긍정적으로, 26.9%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MARC서지레코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가의 조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65.5%), KERIS(31.1%), 국회도서관(1.3%) 순으로 나타났다(김포옥, 노옥림 2004).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의 CIP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고,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문헌정보센터로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역할의 수행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미국 LC는 그들이 제공한 오리지널 목록으로 인하여 해마다 미국 도서관들이 절약하는 비용이 268Mil. 달러에(<http://www.loc.gov/faq/catfaq>)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국가대표도서관에 어느 정도 기대와 신

회를 보내야 할지 의문이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계와 협력하여 e-CIP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지 데이터의 제공에 힘쓰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도서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아무리 대규모 도서관이라도 협력 없이는 인쇄 자료와 전자 자료에 대한 완벽한 서지데이터를 구비하기 어렵다. 서지작성에서 협력은 건전한 공동목록의 유지에 서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인쇄 자료와 전자 자료의 공동목록시스템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우리나라의 서지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는 KERIS와의 공조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KERIS의 공동목록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소수 몇몇 참여 도서관 이외에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공동목록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들의 카피목록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건전한 공동목록이 유지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리자료를 아웃소싱 하여 불확실한 외부 목록서비스업체의 서지데이터를 제공받는 대신 전문가를 확충하여 신뢰할 수준의 서지레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또 KERIS의 공동목록에 참여한 도서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도서관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 자연히 참여도서관들은 그들 목록전문가의 수준을 높게 된다. 공동목록에 참여한 도서관이 그들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면 자연히 공동목록의 품질의 개선 될 수밖에 없다.

3.3.3 사서직의 정체성 문제

국내 최고의 목록전문가들이 작성한 고품질의 서지데이터를 타 도서관에 제공하여 그들의 목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한다는 사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의 정리업무 아웃소싱의 조사 결과로 보서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업무 아웃소싱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도서관에서 아웃소싱의 도입은 도서관의 비 핵심 업무에 외부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관의 핵심 업무에 주력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대표도서관의 핵심 업무는 과연 무엇인가? 또 특정 업무에 아웃소싱을 도입하기 전에 도서관이 해야 할 일에는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70.2%), 명확한 목표의 설정(51%), 비용 대 효과(39.5%)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김영귀 2001).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야만이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업무 아웃소싱은 이러한 토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음은 도서관이 당면한 사안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완연히 드러났다. 2004년 7월 관장 이하 간부진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등 100 여명이 모여 사무실 및 자료실 이전, 납본 대행 및 자료정리업무 외부용역 추진, 인사문제 등 도서관이 당면한 현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서 직원들은 자료정리 업무 용역의 추진에 대해 “분류, 목록과 같은 사서들의 고유 업무를 우선적으로 외주 용역하기 보다 서가정리 등 단순 업무를 먼저 용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무실 및 2004). 이러한 지적 사실을 보면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은 직원들의 합의에서 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물론 미정리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 보다도 성과주의에 집착한 도서관 정책결정자의 독선이라고 본다. 이러한 결정은 도서관 고유 업무의 속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직의 비전문성과도 연관성이 있다. Dunkler(Dunkler 1996)는 대학도서관 관리자들에게엔 목록부서가 도서관 업무의 핵심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관 관리자와 목록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결과 관리자들의 목록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또 목록부서는 도서관의 어느 다른 서비스보다도 후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목록부서가 핵심부서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는 부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원을 기술하고 주제접근을 제공하는 지적 활동인 온라인목록과 서지레코드를 DB에 입력하기 전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품질제어작업인 카피목록을 혼동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혼동은 자료조직 업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한데서 기인한다고 했다(윤정옥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도서관계에서 요구하는 국립도서관장의 차관급 격상보다(국립도서관장 차관급... 2004) 더 중요한 것은 국립도서관장에 전문직 출신을 임명이라고 본다.

최근에도 이미 문헌정보학계 8개 단체는 국

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직을 전문직으로 요구한바 있었지만 두 기관장은 여야가 번갈아 추천한 정치권 인사의 임명이 관례화 되어 있다(국립도서관장... 2004). 만약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도서관계에서 요구한대로 전문직 사서 출신이었다면 이러한 사서직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리업무의 외주 결정이 가능했을까 하고 자문해보게 된다.

현재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료정리팀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대형 대학도서관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우리나라의 서지유틸리티라고 하는 KERIS의 서지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도서관들이 그들 자관의 직원보다도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외부 목록서비스업체의 직원이 작성한 서지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또 대학도서관들이 그들의 정리업무를 외주하지 않는 이유는 MARC 작성업무를 그들 고유의 전문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포옥, 노옥림 2004). 이렇게 대형 대학도서관들조차도 자료정리 업무의 아웃소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보다도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국가대표도서관이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정리업무를 자관의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외부 업체의 서지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미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는 비판적 시각을 표출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박물관과가 폐지된 후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모든 책임과 업무를 위임 받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

고히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도서관 자료정리의 환경이 변화되어 몇몇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오리지널목록을 작성하기 보다는 카피목록으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목록업무에서 카피목록이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준전문직(paraprofessionals)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Rider 1996). 카피목록자의 역할은 OCLC나 RLIN과 같은 서지유틸리티에 회원기관이 입력한 서지레코드를 로컬시스템에 맞게 수정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이전에 입력한 서지레코드를 개선하고, 오리지널목록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유사하거나 관련된 카피목록이 이미 서지유틸리티에 있는 신규레코드를 생성하고, 청구기호와 커터번호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컬 전자제어와 표준표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지레코드의 저자나 주제를 확인하는 등등이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업무의 수준도 다양하다(Rider 1996). 우리나라의 카피목록자의 역할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목록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외부 목록서비스업체로부터 받은 서지레코드를 확인(QC: Qualified Control), 검수, 교열의 과정을 통하여 자관의 데이터로 통합시키는 것은 목록업무에서 준전문직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판단 해 볼 때 국가대표도서관에서는 오리지널 목록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현재 공인된 서지유틸리티도 부재하고 또 외부목록서비스업체의 서지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검증되지 않은 서지레코드를 카피목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목록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기 보다는 카피목록으로 가는 추세인 현실에서 국가대표도서관조차도 오리지널 목록을 기피하고 있다. 국가대표도서관이 목록전문가를 더 확보하고 또 양성하여 재교육을 시킬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목록전문가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적문화재의 기록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국가대표도서관이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처사는 우리나라 사서직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도 심히 훼손함으로써 도서관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3.4 비용 절감의 문제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용과 품질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이며, 서지레코드의 작성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은 적용된다. 또 비용의 효율성은 이용자자료검색의 효율성과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논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이라고 국가의 예산을 제한없이 쓸 수는 없지만 국가대표도서관은 어느 다른 도서관보다도 고품질의 서지레코드의 작성에는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들처럼 어떠한 비용(예를 들면 인력의 총원)이라도 지불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주한 도서관을 사례로 한 비용의 문제와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비용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고품질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 업무는 많은 비용, 인력, 시간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자동화는 오리지널 서지레코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1974년에 전문사서들이 수작업으로 카드형태의 전자파일을 체크해가면서 영국 국가서지작업을 수행하는데 하루 평균 20여건을 처리했다. 20년이 지난 후 자동화시스템과 자동전자파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처리건수는 변함이 없다(Oddy 2001). 도서관 관리자들도 오리지널 목록의 비용을 측정함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매우 상이하다.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평균 오리지널 목록의 비용이 건당 \$20.8에서부터 \$88.24까지 다양하고, 심지어 LC의 오리지널 목록비용은 \$138.00에까지 달한다. 또 오리지널 목록은 카피목록보다 3배의 비용이 든다. 카피목록의 비용은 \$12.22에서 \$17.00까지로 그 격차가 심하지 않다. 정기간행물은 단행본보다 3분의 1의 비용이 더 투입된다고 한다(윤정옥 2004).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자료정리의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노지현 2004). 도서관에 따라서는 하루 평균 정리건수가 24건도 있지만 50건 내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지만 10분에 1건의 자료를 정리해야하는 도서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오리지널목록과 카피목록이 혼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업무를 아웃소싱 하였으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짧은 기간에 일정량의 서지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목록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분류번호와 주제명의 부여, 전자제어에 대한 업무는 결국 도서관의 목록전문가의 수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

수정작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한다(윤정옥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지적 문화재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또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의 영향력에 홀로 위임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실행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다(Oddy 2001).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 목록서비스업체가 제공한 서지레코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분류번호에서는 많은 오류가 있었다(윤정옥 2004). 실제로 서지데이터의 확인 과정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분류번호의 정확성이다. 그러나 분류번호의 부정확성과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외주 비용과 도서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비용에 관해 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목록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한 MARC DB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외주를 준 문헌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자료관리부의 자료기획과 납본수서팀과 자료조직팀을 운영한다. 자료기획과 납본수서팀에서는 도서관 자료 정리 외부용역사업 자료를 총괄하며 납본대행기관을 통해 들어 온 자료, 도서관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납본 받은 자료, 기증, 교환, 구입자료 등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1일 자료수집통계를 작성하여 외주 사업별(목로, 분류, 장비, 표지, 목차DB 등) 물량을 정리하여 주관 용역사업자에게 작업을 인계한다. 자료조직팀에서는 모든 외주가 끝난 외주결과물에 대한 확인

(QC:Qualified Certification), 검수, 교열, 장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부서에 인계한다. 또 여기서는 모든 외주자료에 대한 표목, 주제명, 등록번호부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국내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의 분류작업까지도 수행한다(자료정리 2004).

외주업체에서 결정한 분류번호의 부여와 외주자료 납품 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기획과에서 수행하는 주제명의 부여는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이 두 군데서 이루어진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자료에 대해 분류번호는 외주업체에서, 주제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조직팀에서 수행하는 중복업무라는 모순은 결과적으로 비용과 연결된다. 목록의 품질과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주제명의 결정은 주제전문사서의 전문성을 총집합 하게 된다. 분류번호는 이렇게 결정된 주제명을 근거로 부여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제명만 결정되면 분류번호의 결정은 큰 어려움 없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두 군데서 따로 처리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명 결정의 업무를 관내의 전문가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주제명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제명이 자료의 검색 시 매우 중요하고, 또 주제명의 부여가 매우 까다롭고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제명의 결정은 외주에서 제외시켰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차피 주제명을 결정한다면 동일 업무 선상에 있는 분류업무를 외주주어야 할 필요가 있

을까? 외주목록서비스업체의 업무에서 가장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분류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난 업무가 분류업무라면 적어도 주제명과 함께 분류업무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외부업체에서 자료의 분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학력의 경험 많은 사서를 채용해야 하며, 이는 곧 외주비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주한 외주사업물량은 총 450,850책(점, 종) 중에서 세부사업물량인 목록은 90,950책이 있고, 분류는 134,750책(점)이 있다. 목록 건당 비용은 학위논문과 마이크로펄쉬가 534원이고 교환자료(동양서, 서양서), 구입자료(동양서), 기증 자료는 건당 634원이다. 반면 분류는 건당 학위논문이 가장 비싼 2,351원이고, 학습서는 2,129원, 교과서가 1,925원, 아동도서가 1892원, 비도서가 1,668원, 교환 자료와 구입 자료가 1,612원이고 만화가 1,433원이다(자료정리 2004). 이처럼 분류비용은 목록의 비용보다 4배까지도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서지데이터를 기술하는 오리지널목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의 주제분석(Subject Analysis)을 통해 주제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주제명의 결정은 자료의 내용을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분류번호는 주제명을 중심으로 분류번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흐름을 이용하여 주제명으로부터 분류기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Electronic

Multi-Tasting System을 LC에서 개발하였다 (<http://classweb.loc.gov/auto>) 분류번호와 주제명의 부여가 동일한 업무 선상에서 동일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은 독일대학도서관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독일의 사서교육은 우리나라와 달라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독일대학도서관의 경우 수서정책 자체를 해당 전문분야의 석.박사학위 소지자인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주제전문사서에 의해 선정된 자료가 도서관에 도착하면 주제전문사서는 자료가 정리업무부서에 넘겨지기 전에 주제명과 분류번호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제전문사서의 교육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에 도서관 혁신방안으로 “민간 외주를 통한 사서직 주제전문사서육성과 자료수집전담제 운영”을 채택하여 망라적 자료수집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주제전문사서육성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육성되는 주제전문사서는 자료정리업무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기보다는 자료수집과 참고봉사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명의 부여는 당연히 주제명표목표를 기초로 결정된다. 미국의 LC에는 LC주제명표목표 이외에 아동문학주제명표목표, 의학주제명표목표, 국립농학도서관주제명표목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랜 숙원이었던 주제명표목표를 2002년에서야 외주를 통해 첫 단계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외주업체인 오름사와 공동으로 콘소시움 형태로 계속 보완해 가고 있다.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 파일에 구축된 레코드7만건은 중국(30만건)과 일본(25만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이재선

2004). 미국 LC의 SACO(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에는 417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이재선 2004) 또 LCSH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나 학문의 세분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갱신이 필요할 때는 단위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편목사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는 주제별 편목사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노지현 2004). 또 미국 LC에서는 CIP 시스템을 작동할 때 의학전문도서관이나 아동도서관은 일반도서 처리기간인 2주일을 초과한다. 의학전문도서관은 주제명 선정을 위해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 보내지고, 또 아동도서관은 목록에 도서의 요약(summary)을 덧붙일 경우 아동문학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http://cip.loc.gov//cipfaq.html#cip>). 국립중앙도서관의 외주자료에는 아동도서관도 11,000책이나 된다. 우리나라 아동도서관의 분류는 국립중앙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에처럼 어쩔 수 없이 일반 성인용 도서 분류표인 KDC를 적용하지만 주제명의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3.5 서지데이터의 품질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 외부용역사업제한요청서에 따르면 외주업체 직원의 조건을

-4년제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분류, 목록 담당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목록, 분류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제시하고 있다(자료정리 2004).

그러나 이러한 제안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리업무 외주업체 직원들의 전공분야는 2년제 졸업자가 47.4%로 가장 많고,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은 26.3%, 나머지는 타 전공분야의 학사출신으로 나타났다(김포옥, 노옥립 2004). 미국에서는 신참 목록사서들이 목록업무를 명실상부한 운영주체로 자립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보고 있다(노지현 2004). 사서들이 목록부서로의 이동 초기에는 각종 규칙이나 형식에 충실히 따르는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데 급급하다가 3-4년이 지나야 자력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목록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제안서에서처럼 2년의 경력으로 어떻게 국가대표도서관의 정리업무를, 게다가 단순한 단행본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정리하여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표준 MARC레코드라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미국 LC에서는 목록부서에 신입직원이 배치되면 데이터의 불량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이르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우 엄격한 훈련기간을 거치고 있다. 또 목록사서만도 600명에 이르고 460여종의 언어로 출판된 도서의 목록을 위해 65명 정도의 특정 언어 목록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29-30명 이었던 목록사서의 수를 정리업무의 외주로 인해 18-19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이치주 2005). 모든 도서관들이 카피목록으로 흐르는 경향에서 국립중앙도서관조차도 자체 전문가를 통한 고품질의 서지레코드의 작성을 외면하고 일반 도서관들처럼 시류에 쫓아 간다면 어떻게 국가의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과는 신

자유주의적 경쟁압력을 의식한 성과주의 혹은 업적 지상주의의 부산물이 아닐까?

서지레코드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사서교육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학부제의 도입으로 과거보다 문헌정보학 전공분야의 학점취득이 감소해짐에 따라 자연히 분류와 목록과목에 배당된 시간 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리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자료정리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문헌정보학과 커리큘럼에서도 목록교육의 감소는 정보접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목록 초보자들도 그들의 교육과정에서 목록과목에 따른 충분한 전문성을 준비하지 못한다. 물론 미국은 공동목록의 활성화와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서지유틸리티로 인하여 오리지널목록의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 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오리지널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목록전문가는 꾸준히 양성되어야 하고, 특히 공동목록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모든 단위 도서관들이 고도의 목록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정리업무를 외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주업체에서 작성한 MARC레코드에 대한 불신(27%)이라고 응답했고(김포옥, 노옥립 2004), 경남지역 대학도서관의 조사에서는 목록서비스업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45.2%)과 또 전문성 있는 업체의 부족(50%)으로 나타났다(김영귀 2001). 우리나라에서 정리업무대행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채 안 된다. 현재 도서관 정리업무

대행업체는 씨지정보통신, 현서정보통신, 한국 문헌정보시스템 등 약 15내지 20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체 대부분은 도서관전산화시스템으로 시작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과 도서관DB구축사업에 주력하였고, 자료정리업무의 대행은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했다. 이와는 반대로 도서관전산화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 당 용역인원을 모집하여 정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업체 자체가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MARC에 대한 이해도 역시 미흡하다. 이러한 업체는 특히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인하여 직원의 교체가 잦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장서량이 많은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몇 업체는 학교도서관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대학도서관 양쪽을 겸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목록서비스업체 데이터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목록서비스 전문 업체의 역사가 짧고, 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곧 고비용과도 연계된다.

LC도 세계 어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 자료의 양에 비해 부족한 직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LC는 이 해결책의 하나로 목록의 모드를 4가지, 즉 완전수준목록(full level cataloging), 카피목록(copy cataloging), 핵심목록(core level cataloging), 최소수준목록(minimal level cataloging)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동양문화권의 자료인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자료는 특수자료(special categories)로 분류하여 최소수준목록의 범주에 포함시키

고 있다.(<http://www.loc.gov/catdir/catmodes.html>).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목록의 구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 제일의 도서관인 미국 LC도 외부의 서지데이터를 카피목록 할 정도로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서지유틸리티인 OCLC WorldCat이 존재한다. OCLC의 ProptCat, Professional Media Services, Baker \$ Taylor와 같은 미국의 목록 서비스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전문적으로 공동편목을 통하여 구축해온 OCLC의 서지DB 이외에도 다양한 전거목록을 통해 카피목록을 작성하므로 서지레코드의 품질에 위축되지 않는다. 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전거파일목록 매치율은 95%에 이른다(Vinh-The Lam 2001). 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미국과 같은 신뢰할 수준의 서지유틸리티가 없어 외주를 통한 정리업무는 데이터의 품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우리나라의 서지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는 KERIS의 MARC 서지데이터를 76.9%를 이용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것은 13.4%에 불과하다. 또 KERIS 종합목록에 대한 15개 대학의 45명의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현직 사서들의 KERIS 종합목록 이용률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그 주원인은 DB품질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와 사용절차의 번거로움 이었고, 또 막상 사용해본 결과 유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서지데이터에 대한 불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KERIS 종합목록 DB의 완전성과 일관성, 그리고 최신성의 결여를 들었다(이재환 2002). 이와 같은

KERIS 종합목록의 불만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도(이제환 2002)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KERIS 측에서도 노력하지만 서지데이터의 품질은 아직까지도 아주 신뢰 할 수준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들의 누적된 미정리 재고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는 대부분 서지유틸리티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며, 또 이러한 자료들을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전문 인력보다 경험이나 전문성 면에서 훨씬 부족한 외부 업체에 맡겨 부실한 데이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현상은 무엇이 진정한 도서관 서비스인지 재고하게 한다. 한번 입력된 서지정보를 수정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체된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정리하여 서비스 하려는 정보의 신속성과 정보의 생명인 정확성과 신뢰성이 배치되는 입장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로 봉착된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궤도에서 나타난 조급증의 발로가 도서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은 정리업무의 외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의 유형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에는 일반 도서도 있지만 목록서비스업체들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카피목록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즉 거의 오리지널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유형들이다. 이렇게 특정자료에 대한 오리지널목록을 직접 작성해야 경우에는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극명하게 증명됐다(윤정옥 2004). 윤정옥의 조사에 의하면 편목대상자료 중 3분의 1만이 외부업체가 처리할 수 있었고, 난이도가 높은 자료에 있어서는 5분의 1정도밖에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3.3.6 외주자료 유형의 문제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외주한 자료의 유형을 보면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학습서, 교과서, 만화, 아동도서, 교환자료, 구입자료, 기증자료 등으로 총 134,753 책이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의 유형을 보면 구입 자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리가 간단한 단행본 보다는 정리가 까다로운 자료들이며, 또 타 기관의 서지레코드의 입수가 어려워 오리지널목록은 생성해야 하는 자료들이다. 우리나라의 목록서비스업체는 일반 단행본을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나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자료정리 능력은 미비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외주자료 유형에서 단행본이 98%로 나타남으로써 증명되었다(김포옥, 노옥림 2004).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행본들은 외주를 주고 대신 비도서자료 같은 까다로운 자료는 자관에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리가 비교적 간단한 단행본은 자관에서 처리하고 정리가 까다로운 자료의 유형들은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사서들보다도 훨씬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목록서비스업체에 맡기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기현상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가능할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체된 미정리자료, 즉 목록대상후보자료(backlogs)의 증가는 기증 자료와 수서의 양이

많고, 또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직원과 준전문 직원의 부족이지만, 이렇게 단순히 정리 직원의 부족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양한 누적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해당 분야별, 언어별 전문직원의 부재이다(Oddy 2001). 누적자료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처럼 목록전문가라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형식이나 언어로 된 외국어자료나 특수 전문자료들이다. 과학 분야에 대한 자료는 인문·사회과학의 자료보다 생명의 주기가 짧고 또 대부분의 정리 담당자들이 과학 분야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정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그 결과 누적자료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외국어 자료나 특수전문자료 혹은 비도서자료도 이외의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관점에서 미국 LC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언어가 460여종에 달하여 63개 언어 목록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시에틀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목록사제제도의 도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 목록사서를 증원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위주로 인해 전문 인력의 감소를 그들의 성과로 입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의 유형은 정리가 어려운 자료들에 집중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외주한 자료 중에서 비도서자료와 어린이도서 만화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 정리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어 본다.

자료의 주제 분석은 도서와 비도서자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비도서자료의 탐

색에서는 주제명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므로 비도서자료의 주제기술을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또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도록 색인어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도서와 다를 바 없으나 대부분의 비도서자료들은 색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 자료 제작자가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자료를 부라우징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도서자료는 자료의 형태상 부라우징이 쉽지 않은 점과 또 도서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주제명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주제명표목과 하위표목은 도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분류체계와 주제명표목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도서용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비도서자료들은 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영화나 비디오녹화자료의 이용 시 이용자는 주제 이외의 다양한 접근점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은 영화의 풍조나 기법 및 장르별 표목과 동화상자료나 실험용필름을 위한 분류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로 야기되는 이용자의 요구를 인식하여 주제 분석에 반영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리담당자는 표준표목에 나타나지 않은 주제명표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분류담당자는 다양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또 세계적인 Dialog, BRS, Medline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신표목을 탐색하거나 타도서관의 목록도 조사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주제명의 결정과정과 분류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린이도서 중에서 최근 들어 만화의 양이 급증하여 만화에 미온적이었던 도서관들이 이

들 자료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어린이도서관의 정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단행본으로 출간했던 어린이도서가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 시리즈 형태로 바뀌는 경우이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표제지의 서명과 판권기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반도서보다 많다. 어린이 도서관은 과거보다 서명에 관련된 표제지의 정보가 너무 많고 현란하기까지 하여 정리하기가 단순하지 않고, 만화의 경우는 정도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위인전에서도 화려한 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최근에는 과학도서도 만화책으로 출판되는 경향이 잦다. 이 경우 출판사에서는 책의 주제 개념을 특별히 정한 후 발간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책의 내용은 법을 다루면서도 실제로는 환경문제에 접근하기도 한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신화”의 경우 목록에서는 만화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장르는 동화인 경우도 있다. 어린이 전집에서 환경을 다루는 소설 같은데도 실제로는 동화인 경우에는 분류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등의 사례가 어린이도서관 정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정리업무 담당자들조차도 어렵게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지 않은 자료들을 목록서비스 업체에 맡기어 어느 정도의 정확한 서지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대표 격인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는 어린이도서관용 분류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KDC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립

된 순천 기적의 도서관 외에 7개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파랑새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두 곳은 KDC변형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1년여 시간을 투입하여 만든 이 분류표들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에 적용하고 있는 KDC의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지만 하나의 분류표를 개발하는 작업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분류표를 만드는 작업은 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해 왔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또 각 지방마다 어린이도서관 설립운동이 활발한 이 시점에서 새로 만들어 사용 중인 어린이도서관용 분류표와 기존의 KDC와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인 통일화 방안이 요구된다.

4. 결론 및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은 수년 동안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미정리자료의 적체현상을 초래 하였다. 미정리자료의 누적은 대국민 도서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들의 미정리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기 보다는 외부목록서비스업체에 외주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가문헌서지정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오던 정리업무를 외주했다는 사실은 외주의 기본원칙, 즉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자원의 집중과도 위배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의 가장

핵심 업무인 서지데이터작성을 외주함으로써 야기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 국가문헌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전문직사서의 정체성, 외주로 인한 비용 절감, 외주자료 유형의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외주를 통해 제공받은 서지레코드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외주사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정리 업무는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의 핵심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온라인목록시대에 접어들면서 카피목록과 함께 정리업무의 외주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서지레코드를 누가 어디서 생성하는 만들어지면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도서관은 KOLIS-net를 통해 카피목록이 일반화되었으나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목록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를 굳이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에 공신력 있는 서지유틸리티의 부재와 짧은 역사를 가진 목록서비스업체의 불신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정리업무의 외주를 통해 자료정리전문가를 감축시켰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카피목록을 일반화하고 또 정리업무를 외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서 적어도 국립중앙도서관만이라도 정리업무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확충하여 고품질의 서지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는 전자 자료의 급증으로 인해 어느 도서관도 협력 없이는 완벽한 서지레코드의 작성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카피목록이 만연해도 누군가는 정확한 서지데이터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마다 목록 전문 인력은 증원하지는 않더라도 감원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의 LC가 OCLC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도 학술도서관온라인종합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KERIS와의 협력 없이는 완벽한 국가서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즉 공동목록이 잘 운영되려면 모든 단위도서관의 목록전문가 확보와 그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공동목록의 운영 주체는 단위도서관들의 전문 인력이다. 각 단위도서관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서지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다. 공동목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목록 참여도서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성을 보일 때만이 온라인종합목록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과 KERIS는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파트너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전자자료(온라인자료)의 정리에서도 인쇄자료의 정리에 서처럼 미정리 자료의 적체현상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의 LC와 OCLC의 CORC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기능 강화 - 직제 개편으로 새로운 도약 맞아-. 2004.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 11: 6.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 164-165.
- 국립도서관장 차관급 격상필요..., 17대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 제안. 2004. 『도서관계』. 10: 6.
- 국회도서관장 - 전문직 인사로 문헌정보학계 8개단체 요구. 2004. 『도서관계』. 6.
- 김영귀. 2001. 정리업무와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361-394.
- 김포옥, 노옥림. 2004. 목록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145-172.
- 납본대행 및 MARC DB 위탁용역사업 추진. 2004. 『도서관계』. 6: 6.
- 노옥순. 1995. 정리사서의 역할변화와 업무재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2(2): 63-83.
- 노지현. 2004. 우리 편목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75-197.
- 도서관법 개정 시안. 2004. 『도서관 문화』. 05. 90.
-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0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서울.
- 목록DB구축 및 자료정비 사업 본격 추진. 2004. 『도서관계』 10: 12.
- 목록/목차정보 유니코드체계기반 구축 및 국가전자도서관 연계·확장 사업 추진. 2004. 『도서관계』. 7/8: 10.
- 사무실 및 자료실 이전 등에 관한 직원 설명회 개최. 『도서관계』. 2004. 7/8: 13.
- 『세계국립도서관 협력과제모음집 - 제 21, 22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자료 중에서-』. 199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 계획 수립. 2002. 『도서관계』. 6: 6.
- 자료정리(목록, 분류, 표지, 목차DB,장비 등) 외부용역사업 제안 요청서. 2004.
- 국립중앙도서관 유니코드체계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시스템 신규·확장. 2003. 『도서관계』. 3: 7.
- 윤정옥. 2004. 대학도서관 자료조직업무 외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국대학도서관대회개최. p.18.
- 윤정옥. 2004. 대학도서관 편목업무 외주의 동향과 논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119-136.
- 윤희윤. 2000. 도서관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1-21.
- 이선영. 2004. 『대학도서관 서지데이터생성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선. 2004. 『국가전자파일구축 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안. 버금으뜸상』. 국립중앙도서관.

- 이제환. 2002. 공동목록 DB의 품질평가와 품질 관리: KERIS의 종합목록 DB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61-90.
- 이치주. 200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납본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전환. 『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서비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자료집. 111-125.
- 참여정부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가?. 2004. 『도서관문화』. 45(12): 94-95.
- Benaud, Claire-Lise and Bordeianu, Sever. 1999. Outsourcing in academic libraries: a selective bibliography. *Reference Services Review*. 27(1): 78-89.
- Die Benutzungsordnung der Deutsche Bibliothek. <http://www.dbf.ddb.de>
- Dunkle, C. B. 1996. Outsourcing the catalog department: a mediation inspired by the business and library literatur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2: 33-43.
- El-Sherbini, Magda. 1995. Contract cataloging. *A Pilot Project For Outsourcing Slavic Book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0: 57-73.
- Libby, Katherine A. and Dana M. Caudle. 1997. A Survey on the Outsourcing of Cataloging in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8(6): 550-560.
- Oddy. 2001. 『미래의 목록법 이론』. 남태우 외 공역.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Rider, M. M. 1996. Developing new roles for paraprofessionals in catalog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2: 26-32.
- Scheschy, V. M. 1999. Outsourcing: a strategy partnership.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16(3): 31-41.
- Tsui, Susan Lo and Cecilia Mushenheim. 1999. Outstanding to OCLC: Three Cataloging projects of the University of Dayton's Marian Library.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 37(2): 145-164.
- Vinh-The Lam. 2001. Outsourcing authority control: experience of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2(4): 53-69.
- <<http://cip.loc.gov/cipfaq.html#cip>>
 <<http://classweb.loc.gov/auto>>
 <<http://www.loc.gov/catdir/catmodes.html>>
 <<http://www.loc.gov/faq/catfaq>>
 <<http://www.nl.go.kr/ecip/>>
 <<http://www.nl.go.kr/ecip/FAQ>>